

卷 頭 辭

韓國刑事法學界의 泰斗이시며 우리 法學界의 巨星이신 金箕斗博士님께서 今年 8月 21日로 耳順을 맞이하시어 本研究所에서는 이를 기리기 위하여 國內外에서 重鎮學者로 活躍하고 있는 同學과 弟子들의 珠玉과 같은 論文을 嚴選·編輯하여 서울대학교 「法學」 제21권 1호를 金箕斗博士 華甲記念號로 發刊하게 되었다.

先生님께서서는 古來로 文士之鄉이라 불리우는 光州에서 出生하시어 그곳에서 高等普通學校를 마치신 후 日本에 留學, 松江高等學校와 東京帝國大學 法學部를 卒業하신 當時의 典型的인 秀才이셨다. 解放後 곧 歸國하신 先生께서는 孤獨했던 高等學校 時節의 오랜 思索을 통하여 가지시게 된 獨創的인 學問의 研究와 有能한 人材의 養成의 抱負를 지니시고 光州醫科大學에서 教職生活을 始作하시어 1952年 以來 지금까지 줄곧 서울大學校에서 講壇을 지켜오고 계시다.

先生께서는 初期 不毛의 刑事法學界에서 우리나라 初有의 刑事訴訟法 冊을 發刊하여 刑事訴訟法學의 礎石을 놓으셨고 그후 十餘卷의 著書와 數百篇의 論文·評釋·時論 등을 發表하시어 우리나라 法學界의 水準을 向上시키는 데에 큰 役割을 하셨고, 새롭고 獨創的인 學說로 理論과 實務 兩面에서 法律文化의 向上에 많은 貢獻을 하여 오셨다. 美國 國務省招請 交換教授로 Harvard大學에서 研究하신 것을 비롯하여 國際犯罪防止會議, 國際人權擁護會議, 犯罪防止 및 犯罪人處遇에 관한 國際會議에 韓國代表로서 參加하셨고, 또한 數次의 유럽·中東아시아·日本 등에서의 研究視察, 國際세미나 參席을 통하여 視野를 넓히고 우리의 立場을 海外에 紹介하는 데에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또한 어려운 時期에 法科大學 學生課長·教務課長·學長·大學院 科主任, 司法大學院 院長의 重責을 맡으시어 大學行政의 發展에 크게 寄與하신 바 있고, 行政大學院委員會·大學院委員會·助教制度委員會·學生指導委員會·司法大學院委員會의 委員으로서 健全한 大學制度의 確立을 위하여 多大한 業績을 남기셨다.

平生을 研究와 教育에 專念하셨지만 先生께서는 결코 白面書生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風流와 雅趣를 지니신 우리나라 으뜸가는 liberalist이시다. 이미 「韓國에 태어난 幸福」이란 名 文集을 펴내신 바 있거니와, 恒常 모자라지도 아니하고 지나침도 없는 中庸之道를 生活信條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의 꾸밈없는 人間性과 그 어느것에도 拘礙되지 아니하는 潑瀾한 氣象과 何時라도 가늠이 움직이는 것이 없는 餘裕는 언제나 부러울 정도다.

金先生님은 講義時間에도 學生들에게 教科書에 쓰여져 있는 남의 理論을 暗記하는 것보

다는 아무리 보잘것 없이 여겨지더라도 스스로 體得한 自身の 見解를 지니는 것이 重要的
 것임을 強調하고 계시거니와 實定法理論解説을 떠나 學生들에게 問題意識을 깨우쳐 주는
 그의 講義는 法大精神을 일깨워 주는 名講義로 學生들이 卒業하여 社會에 進出한 後에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先生님의 疏脫한 性格은 雅號를 갖지 않으시는 데서도 나타나거니와 仁慈하신 性品, 薰薰
 한 人間味는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事實이며 銳利한 批判을 담고 있는 學術論文에서
 도 恒常 그 根柢에 흐르는 따뜻한 人間愛를 感知할 수 있다. 平素에 犯罪問題研究에 心血
 을 기울이시고 지금까지 更生保護會 理事, 大韓教聯 教權擁護委員長, 中央青少年保護對策
 委員會 委員, 矯正制度審議會 委員, 法務部 法務諮問委員을 歷任하시면서 人權擁護의 旗手
 가 되어 默默히 奉仕하여 오신 것은 이러한 人間에 대한 無限한 사랑과 그 尊嚴性的 確信
 에서 緣由하는 것일 게다.

今年에 華甲을 맞이하신 先生의 旺盛한 學究熱로 最近에는 法務部 協助下에 受刑者職業
 訓練制度를 研究하고 계시거니와 直接 矯導所를 訪問하여 在所者들의 生活環境, 作業場 等
 을 일일이 參觀하셨다 하니 그의 圓熟한 年輪 위에 青春의 氣象이 더하여 앞으로 더욱 後
 生이 可驚할 研究論文이 나오기를 期待하는 마음 크다.

平素 尊敬하는 先生의 華甲을 맞이하여 그의 燦爛한 業績을 讚揚하고 또한 千壽를 누
 러시기를 祈願하며, 끝으로 이번 華甲記念號가 빛날 수 있게 玉稿를 許與해 주신 여러 教
 授님들께 感謝드리며, 今年 學內的 어려운 狀況下에서 이렇게 冊이 出刊될 수 있게 된 것
 은 校內關係者, 특히 出版部 여러분의 絶對的인 理解와 協助에 힘입은 바 크며 다시 한 번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1980年 12月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所長 裴 載 湜